

연구논문

한국 여성의 연령별 행복수준 비교와 관련 변인들

류승아* · 한민**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여성들이 세대에 따라 느끼는 행복 수준을 비교해 보고, 각 연령에서 행복과 관련 있는 변인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행복 수준을 비교하였고, 행복 관련 변인들로는 우울, 불안, 자이존중감, 사회비교, 촉진/예방 조절전략, 종합적 사고, 물질주의, 지능변화 신념, 가정 월소득과 종교유무를 살펴보았다. 20대에서 6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총 1,497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20대 여성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대가 높은 수준의 행복을 보였다. 반대로 가장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인 세대는 3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이 높을수록 전 연령대에서 자이존중감은 높은 반면 우울, 불안, 예방조절 전략은 낮은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가 한국 여성들의 개인적/사회적 상황이 고려된 행복 증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행복, 여성, 연령별 차이, 주관적 안녕감, 행복관련 변인들

* 주저자,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ilcheu@gmail.com)

** 교신저자,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rainmaster44@gmail.com)

© 2016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평가에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전체 평균 6.6점)을 받으며 29위를 차지하였고(OECD, 2015), 갤럽(Gallup, 2014)이 조사한 긍정 경험 지수(positive experience index score)에서는 143개국의 조사 대상국 중 118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현재 한국인들의 행복감이 아주 낮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와 관련한 개인적, 사회적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행복 수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 비교 가운데, 연령 차이를 살펴본 국내 연구들은 다소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준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연구들(권태연, 2009; 김은정 외, 1999)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젊은 세대의 행복감 수준이 성인보다 더 낫다는 결과(서경현, 2012)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과 노인층의 행복 수준이 성인 중기보다 높게 나타나서 연령과 행복의 관계가 U자 형태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한민 외, 2013). 또 다른 집단 비교로 성별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행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김명소 외, 2003; 신승배, 2015). 이들 연구 중 한국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춘, 특히 연령별 행복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여성의 행복을 발달 단계에 따라 청년기(20대), 성인초기(30~45세), 성인중기(45~59세), 성인후기(60세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유경·이주일, 2010)가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연령대별 구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도 급속히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과 그에 따른 영향 변인들도 다양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연령별

행복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각 세대가 처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들의 연령차에 따른 행복 수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연령별 행복수준과 더불어 각 연령의 행복과 관련한 변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으로는 우울(김금미, 2010; 김민경, 2011; 윤갑정, 2012), 자아존중감(배지아, 2014; 유설희, 2013), 사회비교(Kim and Ohtake, 2014), 물질주의(Deckop, et al., 2010; Karabati and Cemalcilar, 2010), 소득(김명소 외, 2003; 이현송, 2000; Kawachi, et al., 1997), 종교(Moberg, 2008; Van Rijn, 2008) 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행복관련 변인들이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모든 연령에서 행복과 관련 있는 요인들이 같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행복관련 요인들은 정체감 형성, 신체이미지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양미진 외, 2006), 성인기에는 가족, 자녀, 경제력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구재선·김의철, 2006). 또한 어떤 변인들은 모든 연령에서 행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관련 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행복과 관련있는 변인들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여성의 발달과정과 사회적 상황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행복수준은 40세 정도까지는 하락하지만 이후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다(Easterlin, 2001). 또한, 80개국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가 연구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나이, 성별, 결혼유무, 교육 정도, 수입, 그리고 세대별 코호트 효과를 모두 통제한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는 40대 중반까지 점점 낮아지고 이후로 점점 회복하는 형태가 나타났다(Blanchflower and Oswald, 2008). 국내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령과 행복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패턴을 보였는데, 일부 연구에서 해외 자료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한민 외, 2013). 한민 외(2013)의 연구에서는 40대와 50대보다 30대가 가장 낮은 행복감을 보여주었으나, 이는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결과이므로 여성의 행복에 대한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령대에 따른 전반적인 행복 수준에 대한 언급일 뿐 특정 연령대의 어떤 요인이 행복과 상관을 보이는지도 알 수 없다.

여성들의 삶은 연령에 따라 삶의 형태, 사회적 관계, 가족형태, 사회적 지위 등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20대 여성들은 취업 및 직장생활이 삶의 큰 과제이며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 맺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30대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생활 사건들이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사회적 활동여부나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 등이 행복을 경험하는 다른 맥락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연령별 혹은 세대별 행복의 차이가 각 연령대에서 느끼는 사회문화적 만족도의 차이인지, 아니면 정서경험 방식의 차이 때문인지 불분명하다.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연령대에 따라 경험하는 행복수준과 특정 연령대의 행복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선별해 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여성들의 행복과, 각 시기의 행복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변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인구 통계적 변인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변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변인들뿐만 아니라, 아직 행복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지 않은 변인들을 추가하여 살펴볼 것이다.

먼저 정서적 측면에서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김금미, 2010; 김민경, 2011). 윤갑정(2012)은 예비보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행복을 가장 많이 예언하는 변인이 우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울은 행복과 강력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불안 증상은 대인관계 상황을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서 스스로를 위축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심할 경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공포심까지 유발한다(Beidel, et al., 1985). 따라서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개인 및 사회적 기능의 감소로 인한 고립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행복감은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정서 영역에서 행복과 관련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또 다른 중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보고되고 있다(배지아, 2014; 유설희, 2013; Myers and Diener, 1995; Stein, 1995).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연관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아존중감이 스스로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와 연결되는 개념으로서 현재의 삶 뿐만이 아니라 과거 및 미래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가와 상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Coopersmith, 1967). 예를 들면, 자아존중감은 성공적 노화 인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신영, 2010). 요약하면, 높은 우울과 불안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행복을 보인다고 기존 연구들은 결론짓고 있다.

다음으로 사고방식의 영역에서 행복과 관련한 변인으로는 우선 사회비교를 들 수 있다. 사회비교는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 등을 남과 비교하여

사고하려는 것을 말하며,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 행동의 기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Gibert, et al., 1995).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기본적 사고경향이라고는 하지만, 사회비교는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Kim and Ohtake, 2014). 다음으로 조절초점 전략도 행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방식의 한 변인이다. 조절초점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는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으로, 촉진조절과 예방조절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촉진조절은 성공이나 성취를 얻기 위한 접근적인 행동 전략을 취하며 항상 목표를 기본으로 하는 반면, 예방조절은 실패나 실수를 피하려는 회피 행동 전략에 초점을 두고 예방과 안전을 목표로 한다(Higgins, 1997).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조절초점과 행복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조절초점 변인과 행복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고방식 영역의 또 다른 변인은 종합적 사고이다. 종합적 사고와 행복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이유는 종합적 사고가 동양의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전체와 요소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인지양식(Choi, et al., 1999; Nisbett, et al., 2001)이므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연령대 별로 행복과의 연관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 사고가 동양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다면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행복과의 관련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치관 영역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물질주의가 행복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행복한 사람은 물질주의 성향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김경미, 2014; Christopher and Schlenker, 2004; Deckop, et al., 2010; Karabati and Cemalcilar, 2010).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행복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행복은 내적인 충만이나 만족감과 관련되지만, 물질주의는 그와 반대로 외적 자원이나 물질적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변화가 쉽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Christopher and

Schlenker, 2004).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과의 관련성을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살펴 본 적은 없었던 지능변화 신념과의 연관성을 보고자 한다. 지능변화 신념은 스스로가 노력하면 지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러한 신념이 강할수록 자신의 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해 동기화되며, 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Dweck and Leggett, 1988). 많은 연구들은 지능변화 신념이 행복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목표 지향성, 과제 지향성, 학업성취, 및 자기 조절 등의 변인들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Braten and Stromso, 2004; Frunham, et al., 2003; Kinlaw and Kurtz-Costes, 2003). 따라서 지능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과 행복과의 관련 가능성을 살펴보고, 특히 어떤 연령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 외 행복관련 변인으로는 소득 등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득은 행복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김명소 외, 2003; 이현송, 2000; Kawachi, et al., 1997), 또 다른 연구들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구재선 · 서은국, 2011; Diener, et al., 2010; Diener and Seligman, 2004)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교의 경우에는 다소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종교가 행복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Moberg, 2008; Van Rijn, 2008)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행복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들(윤현숙 · 원성원, 2010; Childs, 2010)도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여성들이 연령에 따라 느끼는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볼 것이다. 둘째, 각 연령대의 행복과 관련있는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영역의 다양한 변인들, 그리고 기타 인구 통계적 변인들과의 관련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3. 방법

1) 참가자 및 절차

자료는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5개 권역 모두에서 균형 있게 수집하기 위해서 권역별 동일한 수의 참가자로부터 설문을 진행하였다.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에 이르는 5개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각 권역에서 50명씩(20대는 100명), 즉 5개의 권역에서 각 연령대 별 250명(20대는 500명), 총 1,5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 중 미응답 3부를 제외하여 149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행복 척도는 심리학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측면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정도와 정서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Diener, et al., 1985). 삶의 만족도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며,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는 적게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안정감을 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주관적 안녕감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는 삶의 만족도 척도(Diener, et al., 1985)와 긍정/부정 정서 척도(Watson, et al., 1988)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총 5문항(예를 들면, '나의 삶의 조건은 매우 훌륭하다')의 7점

리커트 척도이고, 긍정정서(예를 들면, '신나는', '활기찬') 10문항과 부정정서(예를 들면, '피로운', '적대적인') 10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서로 다른 척도들의 조합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각 척도들의 표준 점수(Z점수)를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삶의 만족도 척도가 .90, 긍정정서가 .90, 그리고 부정정서가 .86으로 나타났다.

(2) 우울(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 수준은 미국 정신보건원에서 개발하고 전경구 외(2001)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문항의 예로는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또는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등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3) 불안(Beck Anxiety Inventory: BAI)

불안 척도는 벡 외(Beck, et al., 1988)가 개발하고, 권(Kwon, 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불안장애의 증상들을 기술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총 21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예로는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또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은 로젠버그(Rosenberg, 1965)가 개발한 척도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예로는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하고 있다' 또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5) 사회비교

사회비교 성향은 긴본스와 분크(Ginbons and Buunk, 1999)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1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종종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또는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룬 것들과 비교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이었다.

(6) 조절 초점 전략

조절 초점 전략은 오우스찬 외(Ouschan, et al., 2007)가 만든 척도로, 9문항의 촉진조절(promotion)과 9문항의 예방조절(prevention) 하위 요인으로 총 18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촉진 조절은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대체로 내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성공에 초점을 둔다’ 등이 있고, 예방 조절은 실패하지 않기 위한 행동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뜻하는 것으로 문항의 예로는 ‘일반적으로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막는 데에 초점을 둔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촉진조절 초점이 .90, 예방조절 초점이 .80으로 나타났다.

(7) 종합적 사고

종합적 사고는 최 외(Choi, et al., 2007)가 개발한 것으로, 24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어떠한 현상을 부분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전체적인 연결성에 중점을 두는 성향을 말한다. 문항의 예로는 ‘우주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는 ‘어떤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

려면 부분보다는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8) 물질주의

리친스와 다우슨(Richins and Dawson, 1992)이 개발한 척도로, 총 18문항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가진 재산은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말해 준다' 또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나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9) 지능변화신념

지능변화 신념은 드웍과 레게트(Dweck and Leggett, 1988)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6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능변화 신념이란 지능이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문항의 예로는 '나는 노력하면 똑똑해 진다고 생각한다' 또는 '나는 똑똑한 사람은 타고난다고 생각한다(역문항)'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1이었다.

(10) 소득 및 종교유무

경제적 여건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을 100만원 미만(1번)부터 1000만원 이상(11번)까지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20대의 경우는 응답자들 모두가 대학생들이었으므로 정식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이 질문은 생략하였다. 가정 월소득을 조사한 결과, 30대는 월 200-300만원 사이가 2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월 300-400만원 사이가 21.8%를 차지하였다.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월 300-400만원

이 각각 23.4%와 2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월 400-500만원이 각각 21.8%와 21.0%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월 300-400만원이 27.0%로 가장 높았고, 월 200-300만원이 26.4%로 두 번째로 높았다.

종교의 경우에는 믿고 있는 종교의 종류를 표기하게 하였고, 이후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종교 유무로 바꾸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교는 전체의 47.8%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61.2%가 종교가 '있다'고 답하였고, 반대로 가장 낮은 비율은 20대로 37.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4. 결과 분석

여성의 연령별 행복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연령별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 점수를 일원 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1>은 각 연령별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이는 연령은 20대였고($M=.13$, $SD=1.92$), 다음으로 높은 점수는 60대 여성들이었다($M=.06$, $SD=1.75$). 가장 낮은 주관적 안녕감은 30대 여성들이었고($M=-1.04$, $SD=2.21$), 이 점수는 그 다음 낮은 50대 여성($M=-.41$, $SD=2.31$)과의 비교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날 만큼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40대보다 50대가 조금 낮은 경향은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는 30대가 가장 낮은 U형이 나타났다(<그림 1>).

〈표 1〉 여성의 행복(주관적 안녕감)의 연령대별 차이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A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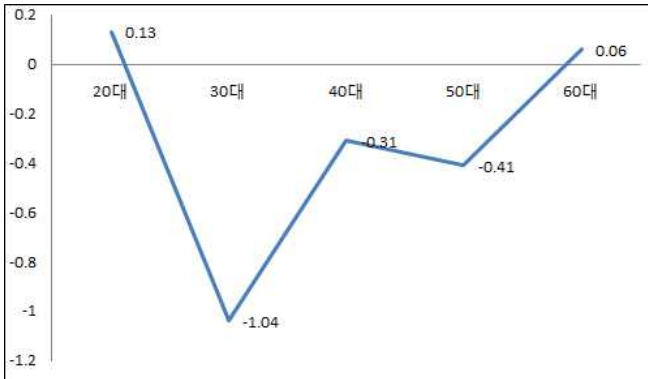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F
사례수	477	250	250	250	250	1477	
주관적 안녕감	.13 ^c (1.92)	-1.04 ^a (2.21)	-.31 ^{bc} (2.27)	-.41 ^b (2.31)	.06 ^{bc} (1.75)	-.42 (2.18)	15.07***

주: ***p<.001.

a, b, c는 연령집단 별 대응비교 결과 (a(b(c, bc는 b와도 c와도 차이 없음).

주관적 안녕감(SWB)의 수치는 표준점수(Z점수)를 구하여 계산한 것임.

〈그림 1〉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의 연령대별 차이



다음으로 각 연령대별 여성의 행복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대별로 주관적 안녕감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과 평균(표준편차)을 〈표 2〉에서 구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행복 수준을 보였던 30대 여성들은 다른 연령에 비하여 가장 높은 우울 ($M=19.02, SD=10.35$), 가장 높은 불안($M=11.24, SD=8.23$), 가장 낮은 자아 존중감($M=4.56, SD=.90$), 가장 높은 사회 비교($M=3.38, SD=.59$), 가장 높은

예방조절전략($M=4.30$, $SD=.86$), 가장 높은 종합적 사고($M=4.92$, $SD=.53$), 가장 높은 지능변화($M=4.96$, $SD=.88$), 그리고 가장 낮은 가정 월소득($M=4.10$, $SD=1.85$)을 보여주었다.

각 연령대별 주관적 안녕감과 의 상관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우울($r_s=-.77\sim-.66$, $p<.001$), 불안($r_s=-.59\sim-.43$, $p<.001$), 자아존중감($r_s=.47\sim.69$, $p<.001$), 예방조절 전략($r_s=-.14\sim-.26$, $p<.05$) 등은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관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여성들은 덜 우울하고, 덜 불안하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예방조절 전략은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는 전 연령대에서 행복과 유의미한 상관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0대를 제외한 30대 이상의 여성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행복이 높은 여성들은 촉진조절 전략($r_s=.24\sim.27$, $p<.001$)을 더 많이 쓰고, 지능변화 신념($r_s=.18\sim.26$, $p<.01$)이 높았으며, 물질주의 성향($r_s=-.33\sim-.18$, $p<.01$)은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변인들을 연령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비교의 경우에는 60대 여성들은 행복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3$, ns). 60대($M=3.22$, $SD=.50$)의 사회 비교 점수가 30대($M=3.38$, $SD=.59$)와 20대($M=3.36$, $SD=.59$)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음에도, 사회비교는 행복과 상관관이 없었다. 이는 60대 여성들의 사회비교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행복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 사고의 경우에는 30대($r=-.15$, $p<.05$)와 60대($r=.18$, $p<.01$)에서 상관관이 나타났는데, 그 방향성이 반대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높은 것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높은 수준의 행복과 관련이 있지만, 반대로 행복감이 가장 낮은 30대에서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성향은 낮은 수준의 행복과 상관관이 있다는 것이다.

〈표 2〉 각 연령대별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과 여러 변인들과의 상관 및 평균(표준편차)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우울	-.66***	-.77***	-.70***	-.76***	-.69***
	17.64(10.24)	19.02(10.35)	16.27(10.40)	17.60(10.26)	17.45(9.21)
불안	-.43***	-.59***	-.52***	-.59***	-.46***
	10.30(8.95)	11.24(8.23)	9.47(7.84)	9.80(8.68)	9.78(8.74)
자아존중감	.47***	.62***	.63***	.69***	.65***
	4.86(.91)	4.56(.90)	4.84(.94)	4.74(.93)	4.65(.79)
사회비교	-.10	-.19**	-.19**	-.19**	-.03
	3.36(.59)	3.38(.59)	3.20(.61)	3.08(.60)	3.22(.50)
축진조절전략	.10	.24***	.24***	.27***	.24***
	4.76(.93)	4.81(.89)	4.83(.92)	4.63(.91)	4.55(.73)
예방조절전략	-.19**	-.25***	-.25***	-.26***	-.14*
	4.11(.86)	4.30(.86)	4.24(.85)	4.18(.85)	4.27(.71)
종합적 사고	.03	-.15*	-.01	.02	.18**
	4.63(.64)	4.92(.53)	4.90(.51)	4.82(.55)	4.62(.45)
물질주의	-.08	-.33***	-.28***	-.25***	-.18**
	3.53(.50)	3.49(.60)	3.24(.60)	3.23(.56)	3.43(.47)
지능변화 신념	.09	.18**	.20***	.22***	.26***
	4.81(.90)	4.96(.88)	4.73(.82)	4.65(.80)	4.50(.71)
가정 월소득		.11	.22***	.23***	.28***
		4.10(1.85)	4.71(1.91)	4.59(1.98)	3.50(1.57)
종교유무	-.07	.02	.06	.07	-.01
	1.37(.48)	1.42(.49)	1.58(.49)	1.68(.47)	1.59(.49)

주: * $p < .05$, ** $p < .01$, *** $p < .001$.

종교 유무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없다는 1, 있다는 2로 코딩하였음.

다음으로 타고난 능력의 변화를 믿는 지능 변화 신념의 정도는 30대 여성들이 가장 높고($M=4.96$, $SD=.88$), 이후에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60대 여성들은 지능 변화 신념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4.50$, $SD=.71$). 하지만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은 반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대 여성들의 지능변화 신념의 상관 크기는 $.09(ns)$ 이지만 30대는 $.18(p<.01)$, 40대는 $.20(p<.001)$, 50대는 $.22(p<.001)$, 그리고 60대 이상의 여성들은 $.26(p<.001)$ 으로 그 강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지능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행복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질주의의 경우에는 20대 여성에서 그 수치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M=3.53$, $SD=.50$), 그 높은 점수가 행복과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대 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다른 연령대에서는 물질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떨어졌다. 가정 월소득은 30대는 행복감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r=-.11$, ns), 40대 이상에서는($r_s=.22\sim.28$, $p<.001$) 모두 가정 월소득이 행복과 상관이 나타났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여성들의 각 세대별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연령대 별로 정서 영역(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사고방식(사회 비교, 촉진조절전략, 예방조절전략, 종합적 사고), 가치관(물질주의, 지능변화 신념), 그리고 소득 및 종교유무 변인들 중 행복과 관련있는 변인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의 요약과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20대 여성의 행복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와 근접하게 60대 여성들의 행복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20

대 여성의 행복 수준이 높게 나온 것이 다른 연구들(권태연, 2009; 김은정 외, 1999; 한민 외, 2013; Blanchflower and Oswald, 2008)과도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가 '3포/5포 세대', '흙수저' 논란 등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힘든 현실임을 감안해 본다면 조금은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는 아마도 본 연구에서 조사한 20대 참여자가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졸업 이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의 높은 장벽에 직접 맞닥뜨리기 전이라는 점이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20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20대 여성들 만큼이나 높은 행복감을 가지는 결과는 기존의 통념, 즉 신체 및 정신기능의 쇠퇴로 인해 부정적 적응 지표가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Brandstadter and Greve, 1994)에서 벗어나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정서최적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Lawton, et al., 1992), 노인들은 부정적 정서경험을 피하고 충분한 긍정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유경·민경환, 2005). 또한 노인들은 정서적 표상과 정서조절을 더 잘하고(Labouvie-Vief, 2003),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동시에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복잡성이 향상된다(Baltes and Stradinger, 2000; Carstensen, et al., 2000)는 점도 60대 이상 여성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가장 낮은 행복 수준을 나타낸 것은 30대 여성들이었다. 이 결과는 한민 외(2013)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이스터린(Easterlin, 2001) 및 블래취플라워와 오스왈드(Blanchflower and Oswald, 2008)의 연구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블래취플라워와 오스왈드(2008)의 연구에서는 40대 중반이 가장 낮은 행복감이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보다 이른 30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여성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 30대라는 연령이 가지는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후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우울, 불안, 사회비교 등의 부정적인 변인들의 평균 점수도 30대 여성들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자아존중감이나 가정 월소득 등의 긍정 변인들은 가장 낮았다는 것은 30대의 힘든 상황이 반영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0대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악조건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아직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높은 행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희망고문이 3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30대는 결혼 및 취업에 있어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부담감을 가져야 하고,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의 문제 뿐 만 아니라 가사노동도 여성의 몫인 경우가 많다(강이수, 2011). 이러한 직장, 육아 및 가사노동의 문제가 30대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행복 수준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현실의 여러 상황을 비추어 볼 때 30대의 고민은 개인의 문제로 돌릴 사안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국가적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각 연령대에서 행복과 관련있는 변인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인 측면인 우울, 불안, 자존감이 전 연령대에서 모두 행복과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여성의 행복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안정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임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정서적 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정서적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정착과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정신보건센터, 병원, 대학교 등에서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지만 정작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각 단체들은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30대에서 50대까지는 사회비교를 할수록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들은 비교 경향성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특히 개인주의 문화보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비교 경향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하였다(White and Lehman, 2005). 문제는 이러한 사회 비교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Kim and Ohtake, 2014), 본 연구에서도 사회비교와 행복의 관련성이 성인 초기와 중기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절초점 전략을 살펴보면, 3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예방조절 전략을 적게 쓰고, 성취지향 중심의 촉진조절 전략을 더 많이 쓰는 것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여성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대의 경우에 촉진조절 전략이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20대라는 발달과정에서 볼 수 있는 적극성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다섯째, 연령별 특이한 사항은 20대의 경우에는 높은 행복 수준에 비하여 행복과 관련있는 변인들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연령에서는 유의미하게 상관을 가지는 사회비교, 촉진조절전략, 물질주의, 지능변화 신념 등이 20대에서는 행복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많은 삶의 영역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에 비하여 20대는 행복을 결정하는 데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덜 받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행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대 다음으로 높은 행복을 보인 60대의 경우에도 다른 세대와 다른 몇 가지 결과를 보였는데, 행복과 사회비교는 상관이 없었고, 종합적 사고는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종합적 사고가 60대에서만 행복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도 주목해 볼만 하다. 즉, 기대수명이 적고 인지적 능력이 감소하는 노인들은 앞으로 달성할 목표를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설정하기보다는 이미 이룬 것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최적화된 적절한 선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과 통합하여 만족하는 것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결과가 현재 6·25 전후 세대인 60대의 코호트 효과인지, 아니면 연령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는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분인 가정의 월소득은 40대부터 행복과 상관이 있었고, 30대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0대의 경우에는 참여자가 대학생들이었으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료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고, 가장 낮은 행복을 보인 30대 여성의 경우, 취업, 직장생활, 결혼 및 출산, 육아 등에서 오는 부정적인 경험이 월소득과 행복과의 상관을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교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는 종교의 유무와 행복의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복과 종교의 관련성은 보다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종교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순히 종교 유무가 아니라 신념과 관련한 종교 활동 참여 정도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이다(Van Rijn, 2008).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났듯이 높은 사회비교와 물질주의 성향은 낮은 수준의 행복감과 관련되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우리 사회가 표방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정치학 분야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민주주의(Dorn, et al., 2007)와 자유(Inglehart, et al., 2008)가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구교준 외(2015)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의사결정이나 정치/경제/사회적 선택의 자율성 등과 관련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이 느끼는 삶의 통제력과 역량과도 연관이 있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가치관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사회 환경 요소들이 행복에 미치는 중요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행복을 측정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요소의 만족감, 정서적 요소인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영역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의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지적 평가, 긍정정서, 그리고 부정정서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주장들도 많기 때문이다(김경미 외, 2014; Diener, et al., 2010; Kaneman and Deaton, 2010),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여성들의 행복 증진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이수(2011), “취업 여성의 ‘남편’과 일-가족 문제”, 『젠더와 문화』, 제4권 1호, 43-87쪽.
- 구교준·임재영·최슬기(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 연구』, 제21권 2호, 95-130쪽.
- 구재선·김의철(2006), “한국인의 행복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2권 2호, 177-200쪽.
- _____. 서은국(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2호, 143-166쪽.
- 권태연(2009), “노년기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 집단의 스트레스 요인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49권 1호, 164-196쪽.
- 김경미(2014), “대학생의 물질주의와 주관적 안녕감 및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1권 10호, 295-314쪽.
- _____. 류승아·최인철(2014), “행복과 학업성취: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0권 4호, 329-346쪽.
- 김금미(2010), “대학생의 행복과 자아수용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3호, 863-883쪽.
- 김명소·김혜원·한영석 외(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2권 2호, 1-33쪽.
- 김민경(2011), “대학생의 우울, 감사 및 낙관성과 행복과의 관계”, 『청소년 문화포럼』, 제28권, 8-32쪽.
- 김은정·오경자·하은혜(1999),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과 심리사회적 특성: 3개월 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2호, 27-39쪽.

- 배지아(2014),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감이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 학위 논문.
- 서경현(2012),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주관적 웰빙: 일반 성인과의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9권 12호, 137-157쪽.
- 신승배(2015),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제41권 2호, 183-208쪽.
- 양미진 · 이은경 · 이화우(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제14권 1호, 63-76쪽.
- 유경 · 민경환(2005), “정서대처양식과 정서인식이 장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4호, 1-18쪽.
- ____ · 이주일(2010),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대 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4권 2호, 89-104쪽.
- 유설희(2013),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윤갑정(2012), “예비보육교사의 목표, 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우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8권 3호, 113-131쪽.
- 윤현숙 · 원성원(2010), “노인의 영성과 종교활동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0권 4호, 1077-1093쪽.
- 이신영(2010),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성별 비교 연구”, 『젠더와 문화』, 제3권 1호, 99-130쪽.
- 이현송(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23권 1호, 91-117쪽.
- 전경구 · 최상진 ·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6권 1호, 59-76쪽.
- 전병재(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제11

권, 109-129쪽.

한민 · 이훈진 · 최인철 외(2013), “60대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의 연령대별 비교”, 『한국노년학』, 제33권 3호, 661-679쪽.

Baltes, P. B. and U. M. Staudinger(2000), “Wisdom: A Metaheuristic (Pragmatic) to Orchestrate Mind and Virtue Toward Excellence”, *American Psychologist*, 55, pp. 122-136.

Beck, A. T., N. Epstein, and G. Brown, et al.(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pp. 893-897.

Beidel, D. C., S. M. Turner, and C. V. Dancu(1985), “Psychological,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pp. 109-117.

Blanchflower, D. G. and A. J. Oswald(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 Cycl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6, pp. 1733-1749.

Brandstadter, J. and W. Greve(1994), “The Aging Self: Stabilizing and Protective Processes”, *Developmental Review*, 14, pp. 52-80.

Braten, I. and H. I. Stromso(2004), “Epistemological Beliefs and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as Predictors of Achievement Goal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9, pp. 371-388.

Carstensen, L. L., M. Pasypathi, and U. Mayr, et al.(2000), “Emotional Experience in Everyday Life Across the Adult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pp. 644-655.

Childs, E.(2010), “Religious Attendance and Happiness: Examining Gaps in the Current Literature: A Research Not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9, pp. 550-560.

Choi, I., M. Koo, and A. Norenzayan(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pp. 47-63.

- _____, _____, and J. A. Choi(2007), "Individual Differences in Analytic versus Hol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pp. 691-705.
- Christopher, A. N. and B. R. Schlenker(2004), "Materialism and Affect: The Role of Self-Presentational Concer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pp. 260-272.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Deckop, J. R., C. L. Jurkiewicz, and R. A. Giacalone(2010), "Effects of Materialism on Work-Related Personal Well-Being", *Human Relations*, 63, pp. 1007-1030.
- Diener, E., W. Ng, and J. Harter, et al.(2010), "Wealth and Happiness Across the World: Material Prosperity Predicts Flie Evaluation, Whereas Psychosocial Prosperity Predicts Positive Fee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 pp. 52-61.
- Diener, E., R. A. Emmons, and R. J. Larsen, et al.(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pp. 71-75.
- Diener, E. and M. E. P. Seligman(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 pp. 1-31.
- Dom, D., J. Fischer, and G. Kirhgassner, et al.(2007), "Is It Culture of Democracy? The Impact of Democracy and Culture o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 pp. 505-526.
- Dweck, C. S. and E. L. Leggett(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 pp. 256-273.
- Easterlin, R.(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 pp. 465-484.

- Furnham, A., T. Chamorro-Premuzic, and F. McDougall(2003), "Personality, Cognitive Ability, and Beliefs About Intelligence as Predictors of Academic Performanc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pp. 49-66.
- Gibbons, F. X. and B. P. Buunk(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pp. 129-142.
- Gibert, D. T., R. B. Giesler, and K. A. Morris(1995), "When Comparison Ari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pp. 227-236.
- Higgins, E. T.(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pp. 1280-1300.
- Inglehart, R., R. Foa, and C. Peterson(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1981-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pp. 264-285.
- Kahneman, D. and A. Deaton(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sychological and Cognitive Sciences*, 107, pp. 16489-16493
- Karabati, S. and Z. Cemalcilar(2010), "Values, Materialism, and Well-Being: A Study With Turkish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1, pp. 624-633.
- Kawachi, I., B. P. Kennedy, and K. Lochner(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 pp. 1491-1498.
- Kim, H. and F. Ohtake(2014), *Status Race and Happiness: What Experimental Surveys Tell Us*,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Kinlaw, C. R. and B. Kurtz-Costes(200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Beliefs About Intelligence", *Developmental Review*, 23, pp. 125-161.
- Kwon, S. M.(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

-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Model of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Labouvie-Vief, G.(2003), "Dynamic Integration: Affect, Cognition, and the Self in Adulthood",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 pp. 201-206.
- Lawton, M. P., M. H. Kleban, and D. Rajagopal, et al.(1992), "The Dimensions of Affective Experience in Three Age Groups", *Psychology and Aging*, 7, pp.171-184.
- Moberg, D. O.(2008), "Spirituality and Aging: Research and Implications", *Journal of Religion, Spirituality and Aging*, 20, pp. 95-134.
- Myers, D. G. and E. Diener(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pp. 10-19.
- Nisbett, R. E., K. Peng, and I. Choi, et al.(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 pp. 131-135.
- Ouschan, L., J. M. Boldero, and Y. Kashima, et al.(2007), "Regulatory Focus Strategies Scale: A Meas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ndorsement of Regulatory Strategi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pp. 223-238.
- Richins, M. L. and S. Dawson(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pp. 303-316.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in, K. F.(1995), "Schema Model of the Self Concep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7, pp. 187-195.

- Van Rijn, J.(2008), "Happiness and Religion: A Denomination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July 31.
- Watson, D., L. A. Clark, and A. Tellegen(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pp. 1063-1070.
- White, K. and D. Lehman(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pp. 232-242.

〈인터넷 자료〉

- Gallup(2014), "Mood of the Word Upbeat on International Happiness Day", <http://www.gallup.com/poll/182009/mood-world-upbeat-international-happiness-day.aspx>(검색일: 2015.2.4).
- OECD(2015), "OECD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life-satisfaction>(검색일: 2016.1.20).

(논문 투고일: 2016.03.03, 심사 확정일: 2016.06.14, 게재 확정일: 2016.06.16)

〈Abstract〉

Differences of Subjective Well-Being (SWB) and Variables Related to SWB Among Generations in Korean Women

Ryu, Seungah* · Han, Min**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level of SWB in Korean women from the age of 20 to over 60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SWB in each gener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1497 women in their twenties and over sixties. The variables examined were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social comparison, focus strategies, holistic thinking, materialism, intelligence-change belief, income and religion. The result showed a U-shaped distribution of SWB, indicating that those in their twenties were the happiest, while those in their sixties expressed a lower level of happiness and those in their thirties had the lowest level. The variables relating to SWB in all the generations were high self-esteem, low depression, low anxiety, and low prevention focus strategy. The implications for each generation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happiness, women, generation, SWB, variables correlated to happiness

* Lead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Visiting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Wusong University